

# 미얀마산 티크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어떤 방식으로 공동입장(COMMON POSITION)을 집행했나?

By Marigold Norman

EU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와 역내 집행기관들이 미얀마산 티크 수입을 EU목재규정(The EU Timber Regulation, EUTR)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얀마산 티크는 해당 규정에 대한 집행 효과성이 높은 회원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식을 통해 여전히 EU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 소개

2017년 9월EU집행위원회와 역내 집행기관들이 미얀마산 티크 수입에 대한 공동입장을 처음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해당 수입목재가 EU목재규정의 준수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동입장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공동입장이 유지되는 한 수입업체는 미얀마산 티크를 유럽시장에 들여올 수 없다.

공동입장의 수립목적은 EU회원국들이 집행에 있어 명확하고 일관된 접근방식을 택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불법목재가 EU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공동입장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현재, 공동입장에 의거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Forest Trends가 공동입장의 집행과 시장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교역데이터를 살펴보았다.



MARCH 2020

## 결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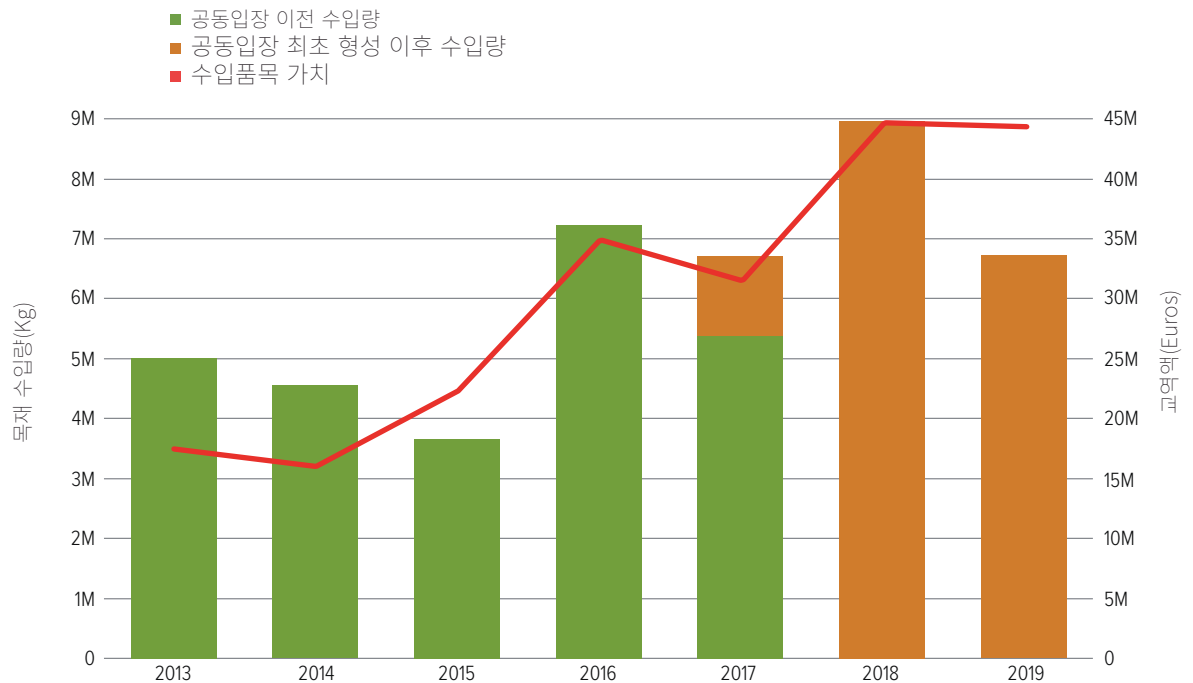
**2019년 EU의 미얀마산 티크 수입량은 공동집행입장 최초 형성시점인 2017년 수입량과 동일하다. 그 사이 해당 수입품목 가치는 40% 증가했다.**

2017년 9월 이후, 1 천7백만 kg 이상의 미얀마산 목재 (€95,800,000 - 약 1,300억원)가 EU시장으로 유입되었다.

2018년에는 수입량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9백만 Kg 상당의 미얀마산 목재가 수입되었으나 2019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림1

**공동입장 최초 형성시점 기준 전과 후: EU 역내 미얀마산 목재 수입량(Kg)과 교역액(Euros)**



출처: Eurostat Comext, 2020



MARCH 2020

## 2

**공동입장이 최초로 형성된 이후, EU역내로 진입하는 각 통관항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공동입장 수립 후 2019년까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핀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덴마크, 영국은 연간 미얀마산 수입 목재량을 모두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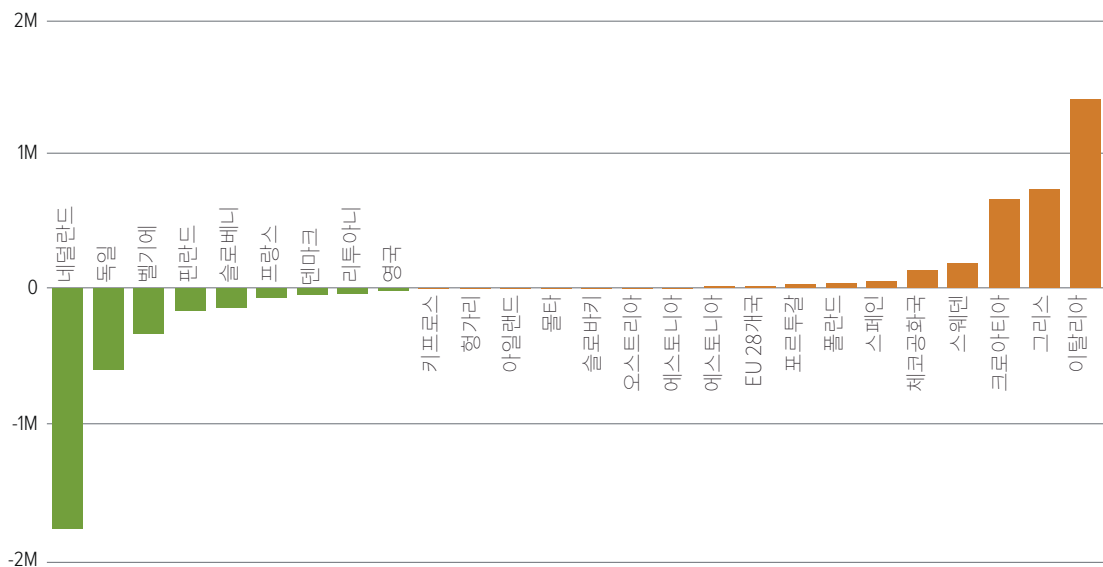
그러나 같은 기간 5개 EU회원국들(스웨덴, 체코,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이 수입량을 크게 늘었다. 그 중 그리스, 크로아티아, 체코의 미얀마산 목재 수입량은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수입규모를 크게 늘린 탓에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핀란드, 슬로베니아에서 발생한 미얀마산 목재 수입량 감소에 따른 효과는 상쇄되고 말았다. 그 결과 EU 공동시장에 유입된 전체 미얀마산 목재 수입 총량에는 사실상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EU법이 일관되게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은 EU목재규정(EUTR)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이는 EU집행위원회가 풀어야 할 묵은 난제이다. 공동입장 집행과정에서 부각된 문제는 광범위한 규제의 비일관성으로, 이는 EU 회원국들의 이행도를 평가하는 집행위원회의 연례 단일시장점검표(Single Market Scoreboard)를 통해 입증되었다. 가장 최신 점검표(2018)에 따르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의 이행성적이 가장 낮았다.

**그림2 2017-2019년 사이 EU회원국들의 연례 미얀마산 목재 수입량 변화**

2017-2019년 사이 EU회원국들의 연례 미얀마산 목재 수입량(kg) 변화



출처: Eurostat Comex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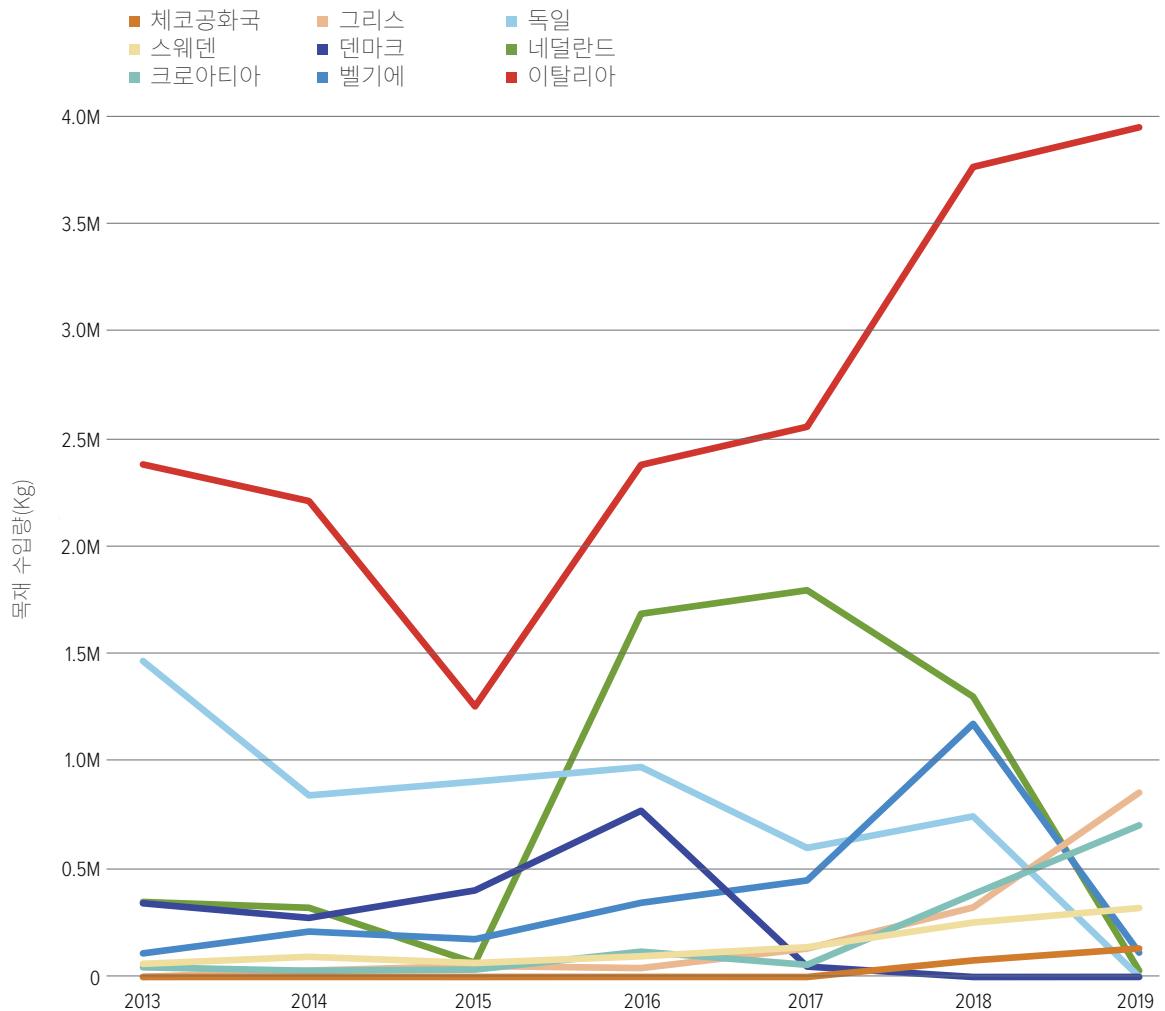


MARCH 2020

## 3

**미얀마산 수입 목재의 절반이 공동입장 최초 형성 후 이탈리아를 통해 EU 시장으로 유입되었다.**

2015년 이후 이탈리아의 미얀마산 목재 수입량은 매년 증가했다. 2019년 이탈리아의 수입량은 4,000,000kg (25,100,000유로)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2019년 유럽 전체 수입량의 60%를 차지한다.

**그림 3 2013-2019년 사이 EU시장에 반입된 미얀마산 목재 수입량(kg)**

출처: Eurostat Comext, 2020





MARCH 2020

## 4

**2018년 여름, 공동입장 강력집행 이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미얀마산 목재 수입량은 크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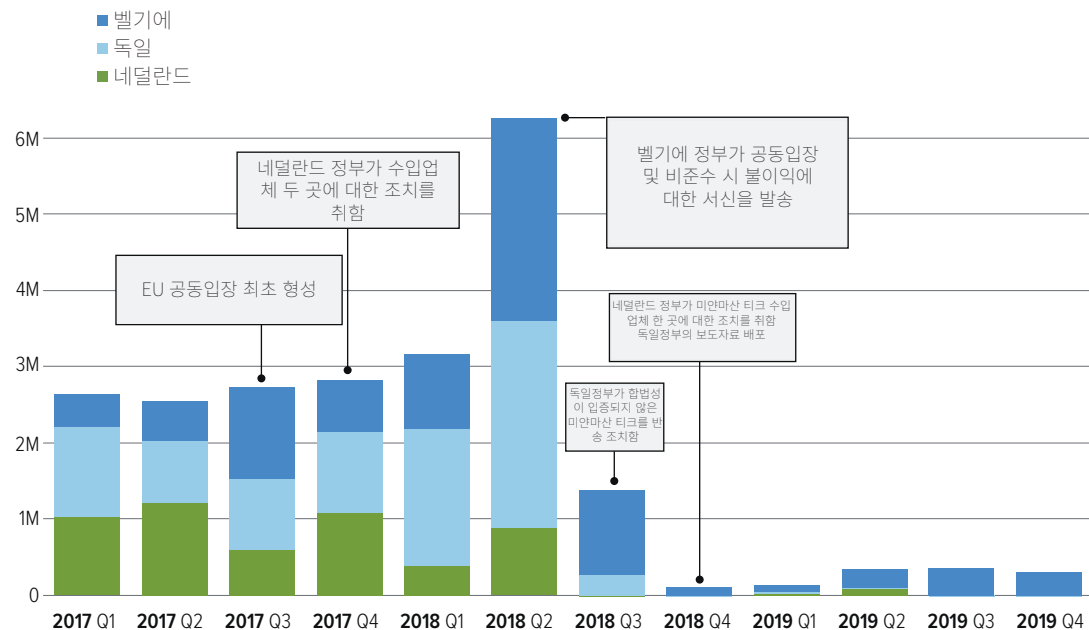
2017-2018년 사이 미얀마산 목재를 수입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EU목재규정(EUTR)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통보되었다. 2017년 9월 공동입장의 최초 형성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2017년 10월 수입업체 두 곳을 상대로 예방성 징벌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듬해 5월 해당 조치의 대상으로 또 다른 수입업체가 추가되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유럽시장에 들어온 티크 원목과 목재품의 각 1입방미터 당 20,000유로(약 2,700만원)의 패널티가 부과되었다.

2018년 독일과 벨기에 정부는 미얀마산 티크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업체들을 상대로 공동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준수하지 않을 시 초래될 결과를 적시한 보도자료를 내고 서신을 발송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불법목재가 유럽공동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선언한 바는 다음과 같다:

모든 미얀마산 수입 티크에 대한 압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압수기간 한달 동안 목재의 합법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목재는 수입업체의 비용으로 반송된다.

그림4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정부가 취한 실질적인 집행조치는 2018년 중반 무렵 중대한 시장변화를 이끌었다.**



출처: Eurostat Comext, 2020



MARCH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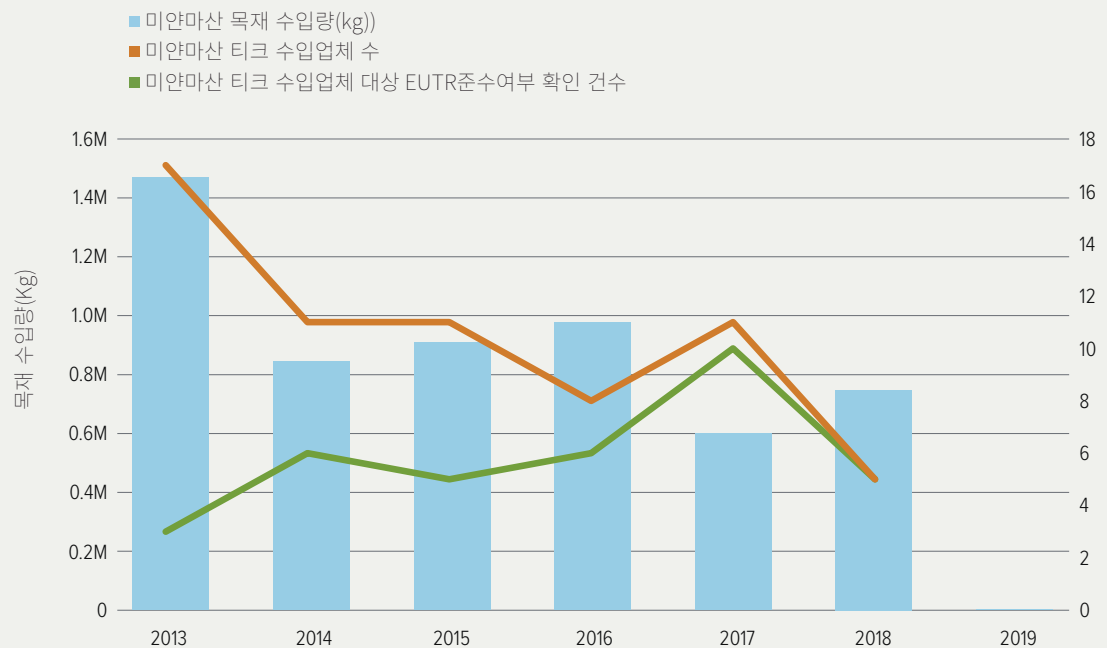
## 사례연구

## 독일의 공동집행입장 이행

2017년 3월 독일집행당국은 미얀마산 티크 수입업체 13곳을 상대로 불법 벌채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성 명령을 내렸다. EU공동입장에 따라 EUTR 준수여부 확인작업이 가속화되었고 2017-2018년에 걸쳐 모든 목재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더불어 다수의 시정조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18년 4월에는 수입업체 다섯 곳에 서신이 발송되었고 2018년 6월에는 미얀마산 수입목재가 EUTR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또한 미얀마산 목재가 설사 인도와 같은 역외국을 거쳐 수입되었다 해도 일시적으로 압수될 수 있으며 압수기간 한달 동안 목재합법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미얀마/원산지로부터 반송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2018년 9월에 싱가포르를 거쳐 독일로 수입된 100,000유로(약 1억3천만원) 상당의 미얀마산 티크 선적물(2건)이 독일정부에 의해 압수되었다. 한달 간의 압수기간 동안 수입업체가 목재합법성 입증하지 못해 2019년 8월 해당 목재품에 대한 반송명령이 내려졌다.

그림5 독일정부가 시행한 목재 수입량 관련 모니터링 및 집행조치



출처: Eurostat Comext, 2020



MARCH 2020

## 5

**현재 수입업체들이 진입항을 바꾸며 EU법을 교묘히 우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자국 내 수입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후 체코집행당국도 2018년 8월부터 미얀마산 수입목재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양국의 집행공조로 미얀마산 수입 티크 관련 고의적 EUTR우회사례가 드러났고 2019년 12월 양국에서 일제검거 및 압수가 이루어졌다. 공식정보에 의하면 해당 티크는 체코로 수입되었으나 네덜란드 바이어에 의해 선 구매된 것이다.

현재 관련 형사 및 행정소송이 네덜란드와 체코에서 진행중에 있다. 2019년 12월 일제 검거 이후 체코로 유입되는 미얀마산 목재수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림6

**네덜란드로 유입되는 미얀마산 목재품 관련 우회규모와 집행조치**

출처: Eurostat Comext, 2020



MARCH 2020

## 요약

공동입장은 모든 회원국들이 일관되게 집행할 때만 성과를 거둔다. EU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가 2017년 초 공동입장 수립에 착수한 후 미얀마산 티크 수입이 EUTR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현재 EU시장 내 미얀마산 티크 반입수준은 2017년 수준과 비슷하다.

EUTR은 역내시장의 목재 수입업체 및 최초 반입주체(first placer)를 규제하지만 회원국간 비밀관적인 집행으로 인해 EU공동시장으로의 미얀마산 티크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티크에 대한 바이어들의 수요는 억제되지 못하고 여전히 최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 이면에서 점점 더 명확해지는 사실은 EU공동시장으로 미얀마산 티크를 반입하는 수입업체가 극소수라는 점이다. 보다 강력한 집행을 통해 각 국가수준에서 이들 수입업체가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집행당국은 공조를 통해 EU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업체들의 우회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강력한 고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U집행위원회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갖춘 집행을 위해 시험운영 및 회원국 집행조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점검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유럽단일시장 전반에 걸쳐 보다 유의미한 통계 및 분석에 대한 독립성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입장 집행에서 발생하는 맹점을 빠르게 찾아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는 각 EU 회원국 집행기구들이 효율적으로 공조업무를 조율하고, 집행접근방식을 고도화하며, 제품규정과 같은 분야에서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활동사례를 관찰함으로써 미얀마산 티크 수입과 관련하여 활용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6월 집행위원회는 시장감독 및 제품준수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그들이 EU시장에 반입되는 제품이 광범위한 보건, 안전 및 환경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목재와 EUTR은 해당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집행기관 간 공조업무조율, 책임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유사한 노력이 목재수입분야에서 요구된다.





MARCH 2020

### 각주

- <sup>1</sup> EC, 2019a. The Summary Record of the 24th FLEGT/EUTR Expert Group Meeting 21 June 2019 referencing earlier conclusions on teak from Myanmar. Available at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expert/index.cfm?do=groupDetail.groupMeetingDoc&docid=34247>.
- <sup>2</sup> EC, 2019b. The Summary Record of the 26th FLEGT/EUTR Expert Group Meeting 12 December 2019. Available at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expert/index.cfm?do=groupDetail.groupMeetingDoc&docid=39135>.
- <sup>3</sup> EC, 2019c. The new Single Market Scoreboard is out. European Commission 2019 edition of the Single Market Scoreboard. Available at [https://ec.europa.eu/growth/content/new-single-market-scoreboard-out\\_en](https://ec.europa.eu/growth/content/new-single-market-scoreboard-out_en).
- <sup>4</sup> EC, 2019a. The Summary Record of the 24th FLEGT/EUTR Expert Group Meeting 21 June 2019 referencing earlier conclusions on teak from Myanmar. Available at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expert/index.cfm?do=groupDetail.groupMeetingDoc&docid=34247>.
- <sup>5</sup> Court of The Hague Ruling published 24-01-2020. Available at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RBDHA:2020:473&showbutton=true&keyword=houtverordening>.
- <sup>6</sup> Court of The Hague Ruling published 27-07-2018. Available at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RBDHA:2018:8196&showbutton=true&keyword=houtverordening>.
- <sup>7</sup> The Belgian letter sent to Operators July 2018 is publicly available at <https://www.health.belgium.be/fr/news/le-bois-importe-du-myanmar-ne-repond-toujours-pas-aux-exigences-eutr>.
- <sup>8</sup> The German press release of June 13 2018 is available at [https://www.ble.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18/180613\\_Myanmar.html?nn=8904412](https://www.ble.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18/180613_Myanmar.html?nn=8904412).
- <sup>9</sup> Information on the German enforcement case study has been sourced from the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9/5681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Steffi Lemke, Uwe Kekeritz, Renate Künast,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 – Drucksache 19/4984 –